

“향우들 단결된 힘으로 고향의 품격 높ی겠다”

‘자수성가’ 기업인 김정열 신임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장

“업그레이드 광주·전남 캠페인’ 적극 참여”

“문화가 번창하고 생명이 숨 쉬는 광주와 전남, 이제 전라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진 만한 때가 됐습니다. 고향분들과 재경 향우가 소통하고 힘을 모으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하는 김정열(70·전화섬유 회장·강진군 신전면 어관리 출신) 신임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장. 28일 만난 김 회장의 얼굴은 의욕으로 상기돼 있었다. 문화수도 광주와, 생태가 뛰어난 전남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서울에서도 크기 때문으로 보였다.

“우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가장 결속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아온 재경 광주·전남향우회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어려운 서울생활 탓에 연대가 많이 느슨해진 향우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찾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 회장은 유독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하는 섬유업 특성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향우회장직을 고사했었다. 그러나 십수

년 전부터 재경 신전면·강진향우회장을 지냈고, 2년 전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고향사랑을 실천해 온 그것기에 주변에서는 회장 취임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인다.

김 회장 역시 전형적인 자수성가 스타 일이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11남매가 밤 먹기도 어려워 일찍 고향을 떠났다. 장남은 아니었지만 형제들을 위해 17세에 서울행 야간열차를 탔노라고 회상했다.

“동대문시장 옷가게에서 일하며 밀가루 소다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장충단공원 뚝갈나무 아래서 새우잠이 일수였죠. 한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 가슴에 품고 추위를 싸웠습니다. 2년 만에 합박을 맞으며 설을 쇠러 고향집에 내려갔지만 빈손이었습니다. ‘니가 잘 돼야 형제들을 서울로 데려갈 것 아니냐. 내려고 싶어도 참여야 왜 왔냐’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던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내 다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회장은 섬유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자산이 됐던 2년여의 옷가게 점원 생활을 마치고 한 때 세탁소로 동생들과 가족을 뒷바라지했다. 하루 3~4시간만 자면서 버텼지만 이젠 아니다 싶었다. 의류업 쪽 경험을 바탕으로 원단 납품에 뛰어들어 특유의 성실함과 높은 안목으로 군·경 단체복, 소방복 분야에서 중견업체로 성장했다. 이 덕분에 1983년 3평 반짜리로 세들었던 5층 건물을 2007년 자신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남동생 한 명은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김 회장의 훌륭한 점은 참된 기부 실천에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고향인 강진의 소외층 노인들이 겨울에 추위 때문에 고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년 수천만 원어치의 무릎 담요와 목도리를 보내주고 있다. 고향의 청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장애학생에게 한 해 두 쉬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벌써 20년째로 수십억 원에 이른다.

100억대 매출 업체를 꾸리게 됐고 주변의 칭송이 그치지 않지만 그는 “소년기에 힘겹게 생활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말로 진솔함을 전한다. 강인하지만 따뜻한 웃음을 지닌 얼굴이 그의 참된 마음을 대변한다.

김 회장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보다



매년 강진군 소외 노인들에게 보온용품 전달하고 있는 김정열(왼쪽 세번째) 회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향우회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향우회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활성화해 고향 사람들과 서울 300만, 수도권 500만 향우회원 마음을 하나로 잇겠습니다. 향우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회원 참여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도, 각 시·군·생산지단체와 농수산물 수도권 유통판매사업을 추진해 고향발전을 돕겠다는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소개했다. 기업을 운영해 온 그의 마인드가 엮여있는 부분이다.

또 광주일보사와 ‘호남미래포럼’ 등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 ‘업그레이드 광주·전남’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고향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향우와 지역간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한때 ‘단결하는 마음이 해방전우회와 버금 간다’던 수도권 호남향우들이 다시 뭉쳐 지역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분들이 재경 광주·전남향우회를 노크해 주신다면 언제라도 푸근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송해기 광양세관 행정관 ‘5월의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규)은 29일, 관세행정 규제개혁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광양세관 송해기 관세행정관(52)을 ‘5월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송 행정관은 ‘광주세관 규제개혁 TF팀’을 구성, 활동하면서 일관되고 방향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진입장벽 ▲물품·행위규제 ▲기업경영활동 장애 ▲중복부제 등 4가지의 개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또, 수출입업체 및 민원인 건의사항 수렴, 간담회 개최 등으로 규제 개혁 과제 24건을 발굴해 관세청에 건의했다. /홍행기자 redplane@

배우 공효진-이진욱 열애 인정



열애설이 불거진 공효진과 이진욱이 실제로 연인 사이라고 양측 소속사들이 29일 밝혔다.

공효진은 MBC ‘파스타’, ‘최고의 사랑’, SBS ‘주군의 태양’ 등을 통해 사랑받고 있다. 이진욱은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와 ‘나인’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김장학 광주은행장·오형국 행정부시장 ‘자랑스런 전남대인’상 수상



김장학 광주은행장 오형국 행정부시장

전남대학교가 개교 62주년(5월28일)을 맞아 김장학(59) 광주은행장과 오형국(59)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자랑스런 전남대인’ 수상자로 선정했다.

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광주은행장에 선임됐다. 김 행장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산학연수생제도 시행, 인턴제도 운영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남대학교 내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 설립 지원 등 모교 및 지역발전에 기여 해온 공을 인정받았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1983년 졸업) 출신인 오형국 부시장은 행정고시(27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후 행정자치부 혁신기획관, 소정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오 부시장은 공직에 몸담는 동안 남다른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국가·지역 발전에 기여해온 물론 2009년 3월부터는 총동창회 부회장 맡아 모교 발전에 헌신해온 공을 인정받아 자랑스런 전남대인에 선정됐다.

‘자랑스런 전남대인’은 대학 졸업 후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월3일 개교 62주년 기념식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실력 뽑내기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9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참가자들이 29일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구재단 신진연구자 공모 최우수 교수 2년 연속 선정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최우성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에는 ‘Q방법론을 이용한 관광전공 대학생의 창업동기유형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기체계 이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신진연구자로 선정돼 2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1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3년도에는 ‘수단-목적 사슬모형을 활용한 직업선택에 대한 직업가치 연구: 호텔 및 관광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최우성 교수는 현재 한국관광산업학회의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과 한국컨벤션학회의 부회장 겸 MICE정책포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송은동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이윤수·김영래씨 장남 종평(KJ광주 삼크)군 이은석(삼성화재 대리점 대표)·최광희씨 장녀 승희(서구 정보화 마을)양 = 31일(토) 낮 12시 농성동성당 062-366-7004.
- ▲김순자씨 장남 정권수군 정영숙(전 광주동신여고 교장)·신영자씨 차녀 윤미양 = 31일(토) 낮 12시 구 상록회관 웨딩홀 4층 예비뉴홀 010-3913-1111.
- ▲장종순(자영업)·최영숙씨 장남 원준군 오일록(해남군 해남읍 재무담당)·김미라씨 차녀 정연양 = 6월 1일(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동 사이닝스톤 모닝컨벤션 02-784-0000.
- ▲박병오(해동할어 대표)·최은숙씨 장남 봉선군 김길성(은혜화원 대표)·노준희씨 장녀 은혜양 = 6월 7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JS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

동창회

-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황명성) 열린

- 음악회 = 6월 3일(화) 오후 7시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062-384-7447.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 = 6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 ▲재광 광주 김씨 종친회 월례회모임 = 6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향우회

- ▲재광 곡성 향우회(회장 김재정) = 6월 1일(일) 오후 6시 30분 예술영양동습합

알림

-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 =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

- 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터’ 무료 상담 = 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 ▲사랑애돌봄사업단 사회전체 이익을 위한 공익형 사업으로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 = 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

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모집

- ▲디자인 스펀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 =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인쇄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 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 = 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 = 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차내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택 있음) 010-9612-7695.

부음

- ▲강영운씨 별세 이강열(국제청소년교육재단 이사장·전 전남도부교육감)씨 부인상 이장성·송재(SC제일은행 이사)씨 모친상 = 발인 30일(금) 광주그린장례식장 7호실 062-250-4455.

- ▲김순례씨 별세 고점석·완석·복자·미숙씨 모친상 = 발인 30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최봉완씨 별세 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성(고양시장)·경은·진영씨 부친상 = 발인 31일(토)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 031-910-744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p style="text-align: center;">102호 故최순수 님(남/65세)</p> <p>子 : 최영민 女/婿 : 최정삼/조병식, 최정화/김순섭 *발 인 : 5월 3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p>	<p style="text-align: center;">301호 故 지중년 님(남/84세)</p> <p>子/子婦 : 지중현/최수애, 지중희/이미경, 지중민/박민선 女/婿 : 최정삼/조병식, 최정화/김순섭 *발 인 : 5월 30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2</p>
<p style="text-align: center;">401호 故양복녀 님(여/103세)</p> <p>子/子婦 : /황정림, /윤승자, 김근수/최정옥, 산수/신인숙 女/婿 : 김옥순/양지선, 김은순, 김화순/손금석 *발 인 : 5월 30일 *장 지 : 나주 동수동 성령 *연락처 : 227-4383</p>	<p style="text-align: center;">402호 故양삼수 님(남/76세)</p> <p>子/子婦 : 양동원/김천희, 양동민/최순자 女/婿 : 양미영/김천희, 양숙영/곽현준 *발 인 : 5월 30일 *장 지 : 나주 다도 *연락처 : 227-4314</p>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